



미 증시, 성장을 전망 하향에도, 실적 기대감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19 일(화) 미국 증시는 IMF 의 전세계 성장을 전망치 하향, 2.9%대를 상회한 미 10 년물 금리 상승 부담에도, 미 교통안전청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제 가능성에 따른 리오프닝 주 강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5%, S&P500 +1.6%, 나스닥 +2.2%). 업종별로는 에너지(-1.0%)를 제외한 경기소비재(+2.9%), 부동산(+2.1%), 커뮤니케이션(+2.1%), 기술(+1.8%) 등 전업종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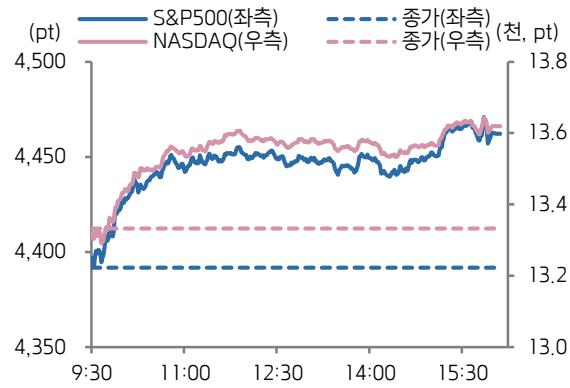
국제통화기구(IMF)는 19 일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 2022년 전세계 경제 성장을 기존 4.4%에서 3.6%로 0.8%p 하향조정. 미국(4.0%→3.7%), 유로존(3.9%→2.8%), 한국(3.0%→2.5%) 등 선진국(3.9%→3.3%)들 대부분이 하향 조정 됐으며, 브라질(0.3%→0.8%), 사우디(4.8%→7.6%) 등 일부 원자재 국가를 제외한 중국(4.8%→4.4%), 러시아(2.8%→8.5%) 등 신흥 개도국들 대부분 하향조정. IMF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급등, 긴축정책 등이 성장을 하향 조정의 배경이라고 밝힘.

미 교통안전청은 5 월 3 일까지 CDC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미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로 판결. 미 백악원 측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해 실망을 표하면서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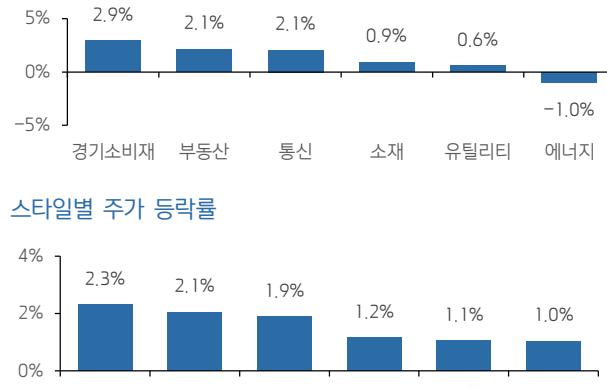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는 2022년 조강 생산량을 2021년의 10 억 3,500 만톤에 비해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힘(2022년 1분기 조강 생산량 2.4 억톤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10.5% 감소). 이는 철강 측면의 공급 개혁을 통해 에너지 소비 및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

미 전쟁연구소(ISW)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현재 돈바스 지역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시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군이 오랜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전투를 준비해온 것이 확인이 됐으며, 그들의 공세에도 그 어느것 하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62.21	+1.61%	USD/KRW	1,236.60	+0.19%
NASDAQ	13,619.66	+2.15%	달러 지수	100.98	+0.2%
다우	34,911.20	+1.45%	EUR/USD	1.08	+0.02%
VIX	21.37	-3.61%	USD/CNH	6.42	-0.01%
러셀 2000	2,030.77	+2.04%	USD/JPY	128.93	+0.02%
필라. 반도체	3,153.23	+2.2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207.15	+2.76%	국고채 3년	2.955	-4.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25	-2.8bp
Eurostoxx50	3,830.76	-0.47%	미국 국채 2년	2.592	+14.4bp
MSCI 전세계 지수	694.23	+0.81%	미국 국채 10년	2.936	+8.3bp
MSCI DM 지수	2,954.15	-0.1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06.68	-0.56%	WTI	102.56	-5.22%
MSCI 한국 ETF	69.17	+0.71%	금	1959	-1.3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41 원.

- 주요 체크 사항**
1. 넷플릭스의 가입자수 쇼크에 따른 시간외 주가 폭락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2. 미국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리오프닝 주들의 투자심리 개선 여부
 3. 순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는 외국인 수급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IMF의 성장을 전망 하향 배경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등은 전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을 둔화시키는 요인이었음을 재확인. '21년 고성장에 대한 역기저 효과 등으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며, 전세계 경기가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랜딩 아니면 침체 중 어느 쪽으로 하향 경로를 형성할지가 관건이 된 상황.

하드랜딩이나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연준의 긴축이 됐건,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건 간에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의견들도 존재. 다만, 이 같은 우려는 주식시장에서도 가격 조정을 통해 소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 연준 역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주장하면서 10년물 금리는 3%대에 근접해가고 있으나, 연준 역시 본인 초래할 수 있는 경제 및 증시 충격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미국 등 주요국들의 타이트한 고용시장 여건, 리오프닝 수요까지 고려하면 전세계 경기의 급격한 냉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금일 국내 증시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급등에 영향을 받아 전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 금리 상승 부담을 소화해가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약 11년만에 처음으로 가입자수 순유출(-20만명, 예상 +250~270만명)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간외 주가가 20% 넘는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미디어 관련주 혹은 전반적인 성장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반면 미국 여행, 항공, 크루즈 업종들의 동반 강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리오프닝주들의 실적 기대감도 유효한 만큼, 금일 국내 증시는 실적 이슈에 따라 차별화된 장세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